



## [교역동향] 英, 유제품 수출입 감소세

- 3/4분기 유제품 수출입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7% 감소

### UK trade in dairy products\*

	Exports		Imports	
	tonnes	yoy change	tonnes	yoy change
Q3 (Jul-Sep)	264,480	-10%	303,185	-7%
YTD (Jan-Sep)	889,319	-11%	865,472	-9%

Source: IHS Maritime & Trade—Global Trade Atlas® - HMRC

\*Trade codes 0401-0406 inclusive. Includes raw milk crossing the Irish border for processing.

올해부터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영국의 유제품 수출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HMR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유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고, 수입 또한 7% 줄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버터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어 수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영국의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15,300톤을 기록했으며, 분유 및 농축 우유 수출도 총 32,1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총 3,400톤의 전지분유를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농축 우유와 크림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ahdb.org.uk, 11월 17일 >

## [낙농경영] 캐나다 낙농업계, 대규모 홍수에 피해 막심

- 젖소 유실, 원유 폐기 등 홍수 여파 심각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낙농업계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홍수로 강이 범람하며 목장이 물에 잠기고 젖소가 떠내려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낙농가들은 자원 봉사자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가축을 높은 지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사태로 다리가 끊기고 도로가 유실돼 집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지역 우유 마케팅 위원회는 농가들에게 원유를 분뇨 더미에 버려 폐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밀과 캐놀라 수출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포타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dairyherd.com, 11월 1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